

## PC-II-9. 보철물, 임플란트 주위의 부착치은의 획득

박재영\*, 김운상, 피성희, 유형근, 신형식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치주과학교실

### 연구 배경

수년동안 적당한 넓이를 가지는 치은은 변연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결합조직의 부착이 계속적으로 상실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왔다.

치은 넓이의 적절함과 충분한 정도에 관한 견해는 다양하다. 몇몇 저자는 부착치은이 1mm이하가 되어도 충분하다는 반면, 다른 이들은 각화조직의 높이가 3mm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세 번째 주장은 치은의 적당한 양에 대해서 좀더 생물학적으로 설명하였다. 즉 치조점막이 움직이더라도 치은건강이 유지될 수 있고 치은변연의 당김을 막을 수 있다면 치은의 넓이는 관계없다고 하였다.

보철물이 치은연하 변연부를 가진다면 그 해당치아는 최소 3mm의 부착치은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이론에 근거한다면 치은연하에 보철물의 변연부가 위치하게 된다면 최소 3mm의 부착치은을 만들어 주는 치주성형수술이 필요할 것이다.

각화치은의 폭과 치은연하 보철물 변연부와 염증과의 상관관계 연구에서 2mm 이하의 각화치은을 가지는 경우 치은염이 보다 많이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 연구재료 및 방법

증례1은 구치부의 보철물 장착후 입술이 당기는 느낌과 칫솔질시 불편감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보철물 하방에 협착 부착치은이 거의 없는 상태였고 구강위생관리를 위한 부착치은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유리치은이식술을 시행하였다.

증례2는 임플란트 식립후 부착치은 부족으로 유리치은이식술을 시행한 증례이다.

### 연구결과

유리치은 이식술을 이용하여 증대된 부착치은의 양상을 보였고 술후 불편감의 해소와 적절한 구강위생이 유지되었다. 향후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결론

여러문헌을 살펴보면 부착치은의 필요성에 대해 필요성을 제기한 논문과 필요하지 않다는 논문으로 나눌 수 있다. 적절한 구강환경이 유지된다면 부착치은이 꼭 필요하다고 할수 없겠지만 적절한 구강위생이 유지되지 않을 경우 부착치은이 있는 경우가 좀더 보철물및 임플란트주위의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사료된다.